

자원봉사자의 힘

중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로서 보치아(Boccia)라고 하는 경기가 있다. 이것은 옛날 그리스의 공던지기 경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로마제국에서도 이 보치아 경기와 유사한 경기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경기 종목의 하나로 인정이 되어 1984년 개최되었던 뉴욕대회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지난 달 부산에서 개최된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서도 경남 양산실내체육관에서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 보치아 경기가 펼쳐졌다. 결승전에는 꼭 찾아가 경기도 관람하고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에 지난 10월 30일 경기장을 방문하였다.

참가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외국 선수들이나 모두가 언어장애의 정도가 심했고 지체장애의 정도도 심해 보였으나 한결같이 침착하고 능률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의 관람석은 빈곳이 많았고 어느 교회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의 조용하면서도 시종 질서 있게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약 70명 정도로 보이는 이 서포터즈들은 미리 준비한 참가국들의 국기를 번갈아 가면서 질서 있게 흔들며 외국선수들을 응원했다. 그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아마도 외국 선수들 뿐 만 아니라 외국 선수와 임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여러 현장에서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자주 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며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980년에 연세재활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후 워싱턴의 가톨릭대학에서 우주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다.

신 정 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7세가 되던 해에 연세 재활원에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학교에서 공부한 김인호군은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도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능에는 장애가 없었다. 재활학교에서 공부할 때 글씨를 손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막대기를 물고 전동타자기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그가 몇 해 전에 들려준 이야기로는 버클리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교 앞 아파트에는 전동 장치와 컴퓨터 시설이 있어서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를 조작해서 TV와 전축을 이용하고 전기를 켜고 끄는 일, 전화하는 일, 물건 사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식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목욕하는 일 등은 컴퓨터 작동으로는 하기 어려워 그의 친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 주었다고 한다.

그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 외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착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장애인들의 재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그들의 자원봉사가 장애인의 재활에 끼치는 힘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장애인의 재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의 자세를 반성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웃을 돕고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덜어 주는 일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자기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㉞